

| 해양영화 |



해양 사고와 대응 - 〈Poseidon Adventure〉

(로널드 니임 감독, 진 해크먼 주연, 20세기폭스, 1972년)

| 김성준 |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sjunekim@kmou.ac.kr

〈차 례〉

- I. 들어가며
- II. 영화의 줄거리
- III. 해양 사고시 대응

I. 들어가며

세월호 사고 이후 우리 국민들의 배와 바다에 대한 관심은 크게 줄어들었지만, 바닷가를 찾아 산보하고, 해산물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더 늘어난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와 바다를 소재로 한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흥행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사회문화적 환경에 있다. 우리 국민들에게 '바다와 산 중에서 어디를 더 좋아하는가?'라고 묻는다면 대체로 '50:50' 정도의 비율로 나뉘게 되는 것 같다. 그러나 '등산과 배 타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아마 '9:1' 정도로 등산이 압도적으로 선호될 것이다. 그만큼 우리에게 배를 타는 것은 흔지 않는 일인만큼 어쩌면 이는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바다나 배를 소재로 한 영화나 노래, 그림이 우리 국민들에게 인기를 끌지 못하는 것도 이해할만하다.

그러나 점차 바다를 무대로 한 낚시, 요트, 스킨 스쿠버, 도서 관광 등이 중요한 여가 활동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바다에서 크고 작은 해양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더 빈발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어선, 예선과 작업선, 낚시 배 등에서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바다에서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미리 생각해보고, 그 대처법을 숙지해 둔다면 생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다.

바다와 배를 소재로 한 영화들은 대체로 해양 사고나 해전, 또는 선상에서의 갈등 관계 등이 주된 테마가 되는 게 보통이다. 필자가 본 해양 재난 영화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는 〈포세이돈 어드벤처〉였다. 1972년에 제작된 영화이니 만큼 영화관에서 본 것은 아니었고, TV의 ‘명화극장’에서 처음 보았던 것 같다. 자료를 찾아보니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 7월 26일 명화극장에서 더빙 방영한 것을 비롯하여 EBS가 KBS-3이던 시절인 1980년대 중순에 더빙 방영한 바 있으며, 1990년대에는 주말의 명화에서 자막판을 방영한 바 있다(namu.wiki). 그 기억이 강렬했던지 해양 관련 영화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비디오를 구해 다시 보았고, 수업에 활용하기 위해 동영상 파일도 구해 두었다.

로널드 니임(Ronald Neame, 1911-2010) 감독이 1972년에 제작한 〈포세이돈 어드벤처〉는 폴 갈리코(Paul Gallico, 1897-1976)의 원작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으로 해양 재난 영화의 고전 중의 고전으로 손꼽히는 영화다. 뿐만 아니라 1970년대에 유행했던 Airport(1970), Earthquake(1974), Towering Inferno(1974) 등의 재난영화 가운데서도 단연 걸작으로 손꼽히는 영화다. 영화계의 평가에서도 1973년 아카데미시상식에

서 주제가상(Morning After)과 특수영상효과 부문 특별상을 수상했으며, 주연배우인 진 해크먼(Gene Hackman)은 영국 아카데미영화상(BAFTA) 주연배우상을 수상했고, Sheely Winters는 Golden Globe 조연 배우상을 수상했다. 선상의 주요 장면은 HMS Queen Mary호에서 촬영되었다고 한다.

상업적으로도 크게 성공했는데 820만달러(또는 470만달러)의 제작비를 들여 미국에서만 8600만달러, 전세계적으로 1억 2730만달러의 수입을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 우리나라에서는 1974년 2월 27일 개봉해 서울 관객 27만 7천명이 관람해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namu.wiki).

관람객의 감상평도 비교적 좋은 편이다. 아마존의 영화평에서는 681명이 참여한 영화평에서 5점 만점에 4.7점을 얻었다. Duke Keagan이라는 평자는 이 영화를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다.

“내가 이제껏 본 재난 영화 가운데 최고! 배역들이 이 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무대, 음악, 서스펜스… 모두 엄청나다. 당대에 최고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만들어진 어떤 영화보다 더 뛰어나다. 몇 개의 리메이크 작품이 제작되었지만, 그 어떤 것도 이 원작에는 미치지 못했다. 리메이크 작품에 최고의 명우들이 출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작의 느낌(spirit)을 포착해 낼 수는 없었다(www.amazon.com).”

II. 영화의 즐거리

한 해가 끝나가는 12월 30일. 뉴욕을 출항해 아테네로 향하는 여객선 S.S. 포세이돈 호. 포세이돈 호는 새 주인에게 팔려 해체되기 위한 마지막 항해에 나선 것이다. 기상이 악화되는 가운데 해리슨 선장은

‘안정장치(stabilizer)를 수리했는지’ 기관장에게 확인한다. 기관장은 ‘펌프 수리 끝나야 손볼 수 있다’고 답변한다. 그 사이 선교에서는 파도가 급격하게 높아져 배가 한차례 기우뚱하고, 선체의 흔들림으로 선객들은 배 밑미로 고생을 한다. 승객 중에는 형사인 마이크 로고와 매춘부였던 그의 부인 린다, 은퇴 후 여행 중인 매니와 벨 로젠 부부, 홀로 여행 중인 프랭크 스콧 목사(진 해크만 분), 부모를 찾아가는 수잔과 로빈 쉘비 남매, 평생 가게를 운영하며 홀로 살다 처음으로 여행에 나선 제임스 마틴 등이 있었다. 선교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선주 대리인 리나코스는 “항해일정에 3일이나 늦었어요. 하루에 수천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으니 전속(full ahead)으로 올리시오”라고 선장에게 요청한다. 이에 해리슨 선장은 “아직 불안정한 데다 남은 배로 전속하기엔 무리”라며 반대한다. 그러자 리나코스는 “새 선주의 대리인으로 명령하는 거요”라고 말하자, 선장은 ‘무책임한 인간’이라 중얼거리며 전속을 명한다.



스콧(진 해크먼) 목사는 존 목사에게 선상 주일 예배에서 자신이 설교하게 해달라고 요청한다. 존 목사의 양해를 받은 스콧 목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안의 신을 찾으시오”라는 취지의 설교를 한다.

12월 31일 저녁 송년만찬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선교에서는 아테네지진관측소로부터 ‘강도 7.8의 강진이 그리스 북서쪽 216km에서 발

생했다'는 경보를 수신하여 만찬에 참석 중인 해리스 선장에게 보고한다. 이에 선장과 리나코스는 급히 선교로 올라간다. 선장이 즉시 지진에 뒤이은 지진해일에 대비해 선원들에게 '만반의 준비를 갖췄는지' 묻자 당직선원은 'Yes, Sir'라고 답한다. 만찬장에서는 스콧 목사의 'To love'라는 건배사로 떠들썩한 송년만찬이 시작되고, 새해 카운트다운으로 새해를 맞이한다. 그 순간 포세이돈 호의 좌현 선수 쪽에서 거대한 물벽(지진해일)이 덮쳐온다. 이에 선장은 급히 'hard larboard'를 발하지만, 이미 늦었음을 깨닫고 통신사에게 'Mayday' 조난 신호를 발하도록 지시한다.



좌현 정황에서 거대한 물벽의 내습을 받은 포세이돈호는 그대로 전복되어 버리고, 선내는 아비규환이 되어버린다. 승무원은 '이 배는

방수장치가 있다. 움직이지 말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제 자리를 지켜라'고 외친다. 이때 뒤집힌 주방 쪽에 홀로 고립된 에이커스가 '도와달라'고 외친다. 선내를 구석구석 돌아다녔던 로빈이 '프로펠러 축 근처에 구멍이 있다'는 얘기를 3기사에게 들었다고 얘기한다. 이에 스콧은 '우리는 고립됐소. 위로 올라가 주방을 통해 선미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승무원은 '우리는 여기 남아 구조대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린다. 스콧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에이커스가 고립된 주방 쪽으로 연결해 가벼운 로빈을 올려 보낸다. 그리고 이곳을 벗어나려면 '주방을 지나 선미 쪽으로 가야 한다'며 머뭇거리는 승객들은 설득한다. 스콧 목사의

말에 동조한 셸비 남매, 로젠 부부, 마이크와 린다 부부, 제임스 마틴, 여가수 나니, 승무원 에크리스 등 10명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타고 올라가지만, 나머지 승객들은 사무장의 말을 듣고 제자리에서 기다리기를 고집한다. 그러는 사이 엔진이 폭발하고 그 충격으로 외벽이 뚫려 거대한 바닷물이 들이닥쳐 만찬장에 남은 승객들을 휩쓸어버린다.

이렇게 스콧은 9명을 이끌고 프로펠러 축으로 가는 출구를 찾아 고군분투한다. 가는 도중에 존스 목사가 이끄는 다른 생존자들을 만나 함께 선미 쪽으로 갈 것을 설득하지만, 그들은 뱃머리 쪽으로 가겠다고 거부한다. 그 사이 폭발로 배가 기우는 바람에 사다리를 오르던 승무원 에이커스가 떨어져 사망하고, 뱃머리를 향하던 사람들도 운명을 달리한다. 기관실과 보일러실, 연돌 등을 통해 선미 쪽 프로펠러 축을 찾아 나선 생존자 9명 가운데 매니 로젠 부인, 린다가 죽는다. 스콧은 마지막 출구를 찾기 위해 허공에 매달려 밸브를 열던 중 하나님에게 호소한다. “무엇을 더 원합니까. 여기까지 올 동안 당신 도움 받은 적 없어요. 우리 힘으로 여기 까지 온 것입니다. 얼마나 더 죽어야 합니까. 얼마나 더 목숨이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내 목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저들은 살려주십시오!” 생존자들을 이끌던 스콧 목사가 죽고 불평불만만 늘어놓던 형사 마이크는 당황한다. 그러자 마틴이 “빨리 우리를 인도해요. 당신 경찰 맞소. 당신은 부정적인 불평만 털어 놔어요”라며 마이크를 독려한다. 이 말에 정신을 차린 마이크가 프로펠러 축실을 통해 선저갑판 끝까지 이른다. 이 때 로빈이 ‘여기는 선체 중 가장 얇은 곳이에요. 1 인치도 안돼요’라고 말한다.



생존자들은 철판을 두드려 위치를 알리고 이를 들은 구조대에 의해 구조된다. 구조되는 순간 마이크는 ‘목사가 옳았어. 훌륭한 놈이었어’라고 중얼거린다.



스콧 목사를 따라 탈출을 시도한 10명의 승객

Ⅲ. 해양 사고시 대응

해양 사고에 직면한다는 것은 곧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스스로 생존을 위해 사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30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것은 침몰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을 시점에 승객들에게 퇴선을 명령하지 않고 선원들이 자기들만 탈출했기 때문이었다. 왜 그 많은 선원들이 승객들을 방기하고 자신들만 퇴선했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지만, 그들 중 한 명만이라도 선내방송을 통해 승객들에게 퇴선하라고 안내를 했다면 그 피해는 훨씬 줄어들었을 것이다.

〈포세이돈 어드벤처〉에서 주된 모티브가 된 갈등은 크게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선주의 대리인인 리나코스와 해리슨 선장간의 갈등이다. 선주측으로서는 어차피 해체하기 위해 구입한 낡은 선박을 하루라도 빨리 목적지까지 가져가 해체해야만 이익을 얻을 수 있지, 바다에서 운항한다는 것을 곧 손실을 뜻한다. 따라서 선주측 대리인으로서선속을 올려 빨리 항해하기를 원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선장으로서는 선박과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항까지 인도하는 것이 의무이므로 ‘안전 항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선주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용인인 선장이 퇴사를 결심하지 않는 한 선주의 지시를 거스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해리슨 선장은 이러한 일반적인 상황과는 다소 다른 위치에 있었던 것 같다.

영화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해리슨 선장은 ‘포세이돈 어드벤처’ 호의 매수인인 새 선주측 고용인이라기 보다는 기존 여객운송업을 하던 매도인인 전 선주측 고용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해리슨 선장은 새 선주의 대리인인 리나코스의 증속 명령을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리나코스가 증속을 명령할 시점에서는 파도가 일기는 했지만, 기압도 그리 나쁘지 않았고 기상도 괜찮은 편이었다. 선장으로선 증속을 거부할 명분은 ‘안정 장치’ 수리가 끝나지 않은 데다 낡은 배라는 것 뿐이었다. 그렇지만, 어차피 포세이돈 호는 아테네에 도착하면 해체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일부 기계적 손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아니었을 것이다. 따라서 해리슨 선장이 ‘이미 예정일에 3일이나 늦어 손실을 발생하고 있다’는 선주측 대리인의 말을 거부하여 증속을 거부하지 못한 것을 비난할 수는 없다.

게다가 포세이돈 호의 전복 원인이 전적으로 증속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다. 물론 해리슨 선장이 증속을 거부하고 정상 속도로 항해했다면 사고해역에서 거대한 물벽을 만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불

과 하루 동안 정상 속도로 항해했을 때와 증속 했을 때의 항해 거리상의 차이만으로 거대한 물벽의 내습을 피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결국 해리슨 선장이 선주측 대리인인 리나코스의 증속 명령을 거부하지 못한 것은 재난의 결정적 원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

둘째, 스콧 목사와 사무장 간의 의견 차이이다. 이 의견 차이는 영화 초반에 짧게 스쳐 지나갔기 때문에 관객들이 간파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승객 중 생존한 사람들은 스콧 목사의 말에 따라 프로펠러 축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었고, 그 외의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는 것을 상기하면 스콧 목사와 사무장 간의 갈등은 이 영화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즉 사무장은 승무원이기는 하지만, 선박의 운항이나 선박의 구조에 대해서는 문외한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사무장은 전복 직후 ‘이 자리에서 기다리면 구조대가 올 것’이라고 승객들을 설득한다.

이에 반해 스콧 목사는 비록 선박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지만, ‘프로펠러 축 쪽에 출구가 있다’는 로빈의 말을 신뢰하고 그쪽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로빈은 비록 어린아이에 불과하지만, 선교와 기관실 등 선박의 구석구석을 가 보았고 선원들로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다. 스콧 목사는 승무원이긴 하지만 선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무장의 터무니 없는 말 보다는 비록 어리지만 기관사로부터 들은 말을 전한 로빈의 말을 신뢰했던 것이다. 이 점이 중요하다. 여객선에 수백-수천명이 승선하는 승무원 보다는 비록 승무원은 아니었지만 선내를 구석구석 다녀보았고 기관사로부터 들은 확실한 정보를 제공한 어린 로빈의 말이 신뢰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또한 스콧 목사의 삶의 태도 또한 스스로 탈출구를 찾아 나서게 된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즉 스콧 목사는 ‘신에게 바라지만 말고 스스로 투쟁하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셋째, 스콧 목사와 마이크와의 갈등이다. 전직 형사인 마이크는 스콧 목사가 이끄는 일원에 마지못해 끼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그와 티격태격한다. 마이크가 보기에는 스콧 목사는 선박에 대해서 모르는 자기가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남이 리드하는 것을 따라한다는 것은 형사라는 직업적 특성에도 그다지 달갑지 않았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탈출 마지막 관문에서 스콧 목사가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하는가, 우리를 도와준 것이 뭐가 있느냐, 우리가 가는 길을 막거나 방해나 하지 말아 달라! 그래도 당신이 원한다면 내가 죽어 주겠다”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희생하자 마이크는 비로소 그의 진정성을 믿고 남은 일원을 이끌게 된다. 여기에서 크든 작든 어떤 조직의 리더는 자기를 희생할 각오를 하지 않으면 조직원들의 헌신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이 영화의 주제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이 영화가 단순한 재난영화가 아님은 주인공의 직업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플롯을 단순하게 정리해 보면 이 영화에 자리잡고 있는 정신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스콧 목사의 말을 듣지 않은 승객들은 모두 사망했다. 또한 탈출 도중에 선의를 따라 선수 쪽으로 향하던 승객들도 스콧 목사의 설득에 불응해 결국 모두 죽었다. 스콧 목사의 희생으로 6명이 생존했다. 결국 신을 믿는 목사의 믿음과 희생으로 생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스콧 목사는 정통기독교적 틀에서 보면 다소 전형적이지 않았다. 그에 반해 존 목사는 선미 쪽으로 가야 한다는 스콧 목사의 주장에 공감하면서도 “나까지 이들을 버리고 갈 수 없지 않나”라며 선수 쪽으로 향하는 일원과 함께 이동하다 폭발로 사망한다. 그런 점에서 존 목사는 정통적 목사의 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포세이돈 어드벤처〉에서 압권은 뭐니뭐니해도 스콧 목사 역을 맡

은 진 해크먼(1930-)의 열연이다. 사실 진 해크먼은 목사의 이미지와 는 다소 먼 거칠고 상남자 역할에 어울리는 배우다. <슈퍼맨 1, 2, 4> 의 렉스 루터 역, <크림슨 타이드>(1955)의 프랭크 램지 함장 역, <에 너미 어브 스테이트>(1998)의 에드워드 라일 역 등 선이 굵은 남성성 이 강한 역을 주로 맡았다. 이는 그가 해병대에 복무한 경력이 크게 작용했는지 모른다. 그는 1948년부터 1951년까지 미 해병대의 통신병 (field radio operator)로서 중국 칭다오와 상하이, 하와이, 일본에서 복 무하고 상병으로 전역했다.



<크림슨 타이드>에서 프랭크 램지 함장 역의 진 해크먼

<포세이돈 어드벤처>는 유럽인에게 선망의 대상인 크루즈선, 스콧 목사의 독특한 개성과 탈출 과정에서 다양한 구성원들간의 갈등과 협력, 기독교적 세계관, 진 해크먼의 열연 등이 한 데 어우러져 해양영 화와 재난영화의 걸작으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2편과 리메이크 작품이 제작되기도 했지만, 원작 을 뛰어넘지는 못했다. 이는 <포세이돈 어드벤처>가 각 고비고비마다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이 영화는 상업영화로 만들어졌지만, 해양인들에게는 해양사고가 발생했 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만드는 영화라는 점에 서 불만한 가치가 충분한 영화다.